

부활 주일 전교인 연합 예배
EASTER SUNDAY ONE CHURCH SERVICE

주후 2022년 4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양 Praise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horship) 주 품에 품으소서 (Still) 주 광대하시네 (Magnificent)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1 Cor.) 15:19-26	고원희 집사
찬양 Anthem	“부활의 찬가”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 (부활의 실제)	Pastor Will
한어 설교 Korean Sermon	“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Christ Is the Firstfrui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세례입교식 Baptism & Confirmation		다같이
봉헌 Offerings		다같이
*송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65 장 “주님께 영광” (통일 155)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망각할 때가 많았고, 우리의 죄성과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도,

부활을 살아내며,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개역개정 고전 15:20)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NIV 1 Corinthians 15:2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7 (주일)	4/18 (월)	4/19 (화)	4/20 (수)	4/21 (목)	4/22 (금)	4/23 (토)
	레21	레22	레23	레24	레25	레26	레27
본문	시26,27 전4 딤후6	시28,29 전5 딤후1	시30 전6 딤후2	시31 전7 딤후3	시32 전8 딤후4	시33 전9 딤후1	시34 전10 딤후2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20수 오후7:30)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삿18:14-31)
토요 새벽기도회(4/23토 오전6:30)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시77:1-15)

지난 주일(4/10) 말씀 –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12)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눅 19:28-40)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 내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즉,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참고, 마21:4, 눅9:10)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일이며,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눅19:31)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담되는 부르심이기 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진실한 믿음과 회개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